

#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Goal Orientation on Academic Self-Efficacy among High School Students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 최정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최연실\*\*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박사과정 서신화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angmyung Univ.

Master : Choi, Jung-Won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Professor : Choi, Youn-Shil

Dep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Korea Univ.

Candidate : Suh, Shin-Hwha

---

##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find out the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nd their goal orientation on academic self-efficacy, especially among second-year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all their family and social environments. For such purposes, a variety of data regarding background variables,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goal orient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were collected in Seoul and Goyang-si, Gyunggi-do.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emale high-school students showed a higher efficiency than the male ones when it comes to the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For the goal orientation, the girl students marked higher levels than the male counterparts; speaking of self-regulated efficiency, the former illustrated a much higher level than the latter as well. Second, academic self-efficacy is greatly influenced by goal orientation. The higher mastery and performance-approach goals are, the higher academic self-efficacy is. It has turned out that mastery goals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ask difficulty performance, one of the sub-scales of academic self-efficacy. In addition, performance-approach goals proved to be deeply connected with self-regulated efficiency, but performance-avoidance goals were negative predictors of task difficulty performance and self-regulated efficiency. In turn, academic confidence, one of the sub-scales of academic self-efficacy, is believed to be under the influence of mastery goals and communication between fathers and adolescents.

---

▲주요어(Key Words) :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s), 부모-자녀간 의사소통(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목표지향성(goal orientation),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

---

\* 주 저 자 : 최정원 (E-mail : vilma@hanmail.net)

\*\* 교신저자 : 최연실 (E-mail : yschoi@smu.ac.kr)

## I. 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기 학생들은 발달단계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갈등뿐만 아니라 성적과 입시부담과 관련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학업성취도에 따른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가정과 학교장면에서 성취동기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되어왔는데,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관한 초기 교육심리연구들은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적 요소에 접근하거나 개인의 심리적 요소에서 그 영향을 찾고 있다(송인섭·박성운, 2000; Elliot & Dweck, 1988).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적응은 가정·학교·사회환경 등 여러 요인과 관련되지만, 이 중에서 청소년이 속한 가정에서의 심리적 적응은 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부모-자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자들(노성향, 1994; 김인향, 1997; 이영숙·김정옥, 2002)에 의해 이미 밝혀져 왔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직접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에 의해 성공의 경험을 많이 한 아동이나 청소년은 자기효능감이 강하다고 하는 보고(Bandura, 1977)도 있었다. 따라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여부가 학업성취와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질이 청소년 자녀의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이전 연구는 지금까지 미미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재고해 보고자 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으로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김아영, 1997; 최영미, 2006)되고 있다. 이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어려운 일이 닥쳐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하기 때문에(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3), 학습자의 목표지향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목표지향성은 학업성취동기와 관련하여 목표이론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진행시켜왔으며(Elliot & Church, 1997),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학습자의 태도 및 수행이 달라짐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학습자 자신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성취 목표를 향상시켜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목표를 통해 학업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학습자가 어떤 유형의 목표지향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학습과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은 물론 학습활동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지금까지 제시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시기 중에서도 입시문제로 인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더욱 중요해지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목표지향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이들이 종속변수인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성별, 학교, 가족관계,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아버지연령, 어머니연령, 월소득, 평균성적), 개인요인으로서의 목표지향성(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과,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아버지와 효율적 의사소통, 아버지와 역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라는 환경 또는 가족요인으로서의 가정환경 변수의 작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효율적인 방안과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목표지향성,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과 남학생과 여학생 간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목표지향성,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의사소통이란 인간관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현상이다. 의사소통이란 의미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상징적 상호교류 과정으로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상호반향적 과정이다(Galvin & Brommel, 1986). 자녀들이 자라면서 갖게 되는 사고, 가치관, 행동양식, 즉 신체적, 정신적

혹은 정서적, 행동적인 성장은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간의 상호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의사소통이다(남정홍, 2001).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교류된다는 것은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부모를 신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심리적 성장과 발달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게 된다. 반면에 가정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교류가 차단된 경우, 자녀는 심리적 불편함과 혼란을 겪고 대인관계에서 긍정적 의사표현이나 교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나 사회 환경에서 문제행동이나 부적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격발달은 부모와 자녀 관계의 산물이며 부모와 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가질 때 자녀는 건강한 발달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이다(이주희·탁정미, 2004).

부모-자녀 관계와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심리적 환경에 관한 이론을 기초로 가정의 심리적 환경요인이 아동의 학교생활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원영희, 1990; Bandura, 1977; Peterson, 1980; Avison & McAlpine, 1992). 구체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적·친애적·개방적일 때 학교생활 전체에 대한 태도가 양호하고, 자율적일 때 교우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원영희, 1990).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는 애정적이고 수용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주며, 부모와 좋은 관계를 갖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이 높고 좀 더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고 한다(Peterson, 1980).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결과, 부모에 의해 성공의 경험을 많이 가진 아동은 자기효능감이 높기 때문에(Bandura, 1977), 부모지지를 통해 지각된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 적응적인 대처방식을 기르게 한다는 결과(Avison & McAlpine, 1992)가 보고되었다.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김희수 등, 2005)의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부모 모두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고상미(2000)의 연구에서도 아동의 스트레스가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문제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부모의 양육 태도 및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특히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순조롭게 만들거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하는 중요한 요인이 밝혀졌고, 이는 자녀의 심리적 안녕과 더불어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교생활, 학업성취, 나아가 진로결정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인다.

## 2. 목표지향성

목표지향성은 성취목표이론에 근거를 둔 개념으로서 성취상황에서 추구되거나 혹은 인지된 목적 혹은 목표에 초점을 두는 사회-인지적 체제 내에서 발달되어왔다. 성취목표이론은 학생들이 자기자신, 과제, 자신의 수행 정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Ames & Archer, 1988).

학습과 관련된 성취동기를 설명하는 데에 목표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목표지향성이란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동적 의도(Meece, Blumenfeld, & Hoyle, 1998)이며, 학습자가 어떤 목표를 채택하면서 생기는 유입정보 처리에 대한 일련의 관심이나 증거(Dweck, 1986)로서, 성취 지향적인 행동의 인지적 측면과 정의적 측면을 통합하여 인지과정을 동기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이 부각되었다(Dweck, 1986; Ames & Archer, 1988).

목표지향성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목표지향성을 두 개의 하위차원으로 이분화하여 왔다. Dweck과 Leggett(1988), Elliot과 Dweck(1988)은 학습목표(learning goals)와 수행목표(performance goals)로, Ames(1992)는 숙달목표(mastery goals)와 능력목표(ability goals)로, Nicholls(1984)는 과제몰입목표(task-involved goals)와 자아몰입목표(ego-involved goals)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목표지향성을 두 가지로 지칭하는 용어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목표지향성의 의미를 Ames와 Archer(1988)에 따라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의 목표지향성 유형에 대한 연구들에서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학생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학습의 내재적 가치를 중시하며 수행결과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고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보고하고 있다(Ames & Archer, 1988; Pintrich & De Groot, 1990; Meece & Holt, 1993). 이에 비해 수행목표지향성은 개인의 능력이나 자기가치감에 초점을 두며, 타인보다 우월하거나 더 우수한 방법으로 수행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중시함으로써 그 결과 학습을 성취수단으로 간주하고 다른 학생보다 더 우수한 성적을 받으려고 노력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한다고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Nicholls, 1989; Ames, 1992; Dweck, 1996).

한편, 이러한 이분법적인 목표유형이 목표지향성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연구자들은 수행목표지향성을 두 개의 하위유형으로 나누었다. Elliot 등(Elliot, 1994; Elliot, 1997; Elliot & Harackiewicz, 1996)은 수행목표지향성을 다른 학생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초점을 둔 수행-접근목표지향성(performance-approach goal)과, 다른 학생에 비해 자신의 무능함

을 회피하는 데 초점을 둔 수행-회피목표지향성(performance-avoidance goal)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 3.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Bandura(1977)가 제시한 자기효능감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과제나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개인의 신념, 즉 자신감”으로 정의된다. 특정 영역에 대해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 그와 관련된 행동을 피하려고 할 것이고, 성취 수준도 낮을 것이다. 반면에 자기 효능감이 높은 경우에는 특정 영역과 관련된 행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성공적으로 그 과제를 완수할 가능성을 높게 해준다. 자기 효능감은 행동이나 행동변화의 중요한 중재자로 기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은 학업상황에서의 자기효능감으로 학생이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김아영·박인영, 2001; Bandura, 1977).

일반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고(Bandura & Schunk, 1981),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Schunk, 1983),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과제를 지속한다(Bandura & Schunk, 1981; Schunk, 1983).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불안은 느끼는 정도가 낮고,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Pintrinch & De Groot, 1990), 자기관찰, 자기평가,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능력이 뛰어나다(Zimmerman et al., 1992).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상황에서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다른 동기적 변인 및 인지적 변인과 함께 학업성취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능력과 수행을 매개한다고 보이며(Bandura, 1986), 학습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이 학습과 관련된 과제선택이나 선호도, 지속성 같은 동기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Ames & Archer, 1988; Miller et al., 1993)이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변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김아영·박인영, 2001; 김아영·차정은, 2003; 신중호·신태섭, 2006; 최영미, 2006; 소연희, 2008)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신중호·신태섭(2006)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업에 관련한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관계를 이루고 다른 동기

적 변인 및 인지적 변인 상호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Zimmerman 등(1992)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에 관한 경로분석 연구를 실시하여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생의 성취목표를 향상시켜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목표를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Garcia와 Pintrinch(1991)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신이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학생들은 더 많은 인지적, 초인지적 전략을 사용하며, 과제 지속성의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 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목표지향성 및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이론적 관점에 따라 강조되는 바가 다르다. 선행연구에서는 지능, 건강, 스트레스 수준,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가구소득, 가족 구조,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가족 요인,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급분위기 등과 같은 학교 요인, 이웃의 빈곤수준과 같은 이웃요인 등을 지적하고 있다(김경식, 2006; 신중호·신태섭, 2006; 이숙정, 2006).

유아기와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학생들도 아직 중요한 성장의 발달단계 과정에 있다고 볼 때, 그들이 속한 가정, 사회, 학교의 장은 모두 한 인격의 바람직한 형성에서부터 바람직한 성장과 진로발달에까지 참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진로를 준비하는 청소년기 단계에서 학업적인 성취감이나 자기효능감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다른 가정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목표지향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권대훈(1995)은 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학습자 자신의 학업능력에 대한 자기효능은 학습행동 및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혔다. 즉, 자기효능 수준이 높을수록 정보를 심층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학습방략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학습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학습과제를 가치롭게 생각하도록 하며, 따라서 학업성취도 높다는 것이다. 가인영(2003)은 목표지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 성취도와 의 관계 연구에서 목표지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분석 결과, 숙달목표가 수행준근목표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더 잘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심리요인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더불어 가정환경요인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 신중호·신태섭(2006)의 연구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효과가 학생들이 지각하는 외부의 기대의 효과보다 크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의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이한 결과는 학생 가정환경의 학업성취에 대한 직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교사기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어느 한 가지 요인이자기보다는 이러한 개인의 심리요인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을 둘러싼 가정환경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거나, 이들 요인이 상호작용을 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어머니의 개방적 의사소통에서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 모두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진로결정, 진로정체감을 유의미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수 등, 2005).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으로 부모의 학력과 직업, 소득 등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상이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김현주·이병훈, 2005)도 있다. 이 외에도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연구들이 있다(김경근, 1996; 곽수란, 2006). 이들 선행연구는 부모와 자녀간의 토론과 대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원 및 지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등과 같은 요인이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청소년기에 속하는 고등학생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반계 두 개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3명과 경기도 K시 소재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와 서울시에 위치한 특수목적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 2개 등 총 4개 고등학교의 2학년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고등학생 전체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수이지만 경기도 K시의 경우, 학업 성취도가 높은 상당수의 학생들은 외국어고등학교를 포함한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검사의 대상지역인 K시의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표집만으로 전체 고등학생들의 일반성을 부여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검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의 고른 분포를 위해 외국어고등학

교를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물론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성이 있기는 하지만, 보다 다양한 표집을 위해 인문계와 외국어고등학교를 표집 대상에 넣었고, 경기도 외에 서울지역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전년도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절차

연구자는 본 연구의 취지 및 검사 실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선정된 학교별 자료 수집을 담당할 교사와 사전협의를 가졌으며,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성실하게 질문지에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30분 정도이다. 가정환경 배경요인 검사, 학업적 자기효능감 검사, 목표지향성 검사의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검사를 가장 마지막으로 실시하였다. 총 46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한 개의 검사라도 실시하지 않은 학생이나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분석에는 429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 3. 변수의 정의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선행연구들(이연숙, 2000; Rohner, 1991)에서는 의사소통을 “인간의 감정이나 느낌, 생각 등의 메시지를 언어적·비언어적 수단을 통하여 상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 및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Barns와 Olson(1982)이 제작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척도’에 나타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개념을 사용하여, 아버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였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며,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의사교환에 있어 혼계나 지시를 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부정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한다.

##### 2) 목표지향성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Meece et al., 1998)을 참고로 하여 목표지향성을 “학습자들이 어떻게 학습활동에 접근하고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행동적 의도”로 정의한다. Ames와 Archer(1988)는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을 숙달목표지향성과 수행목표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숙달목표지향성은 과제 상황에 임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나 결과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데 주력하며,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수행목표지향성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의식을 집중하는 목표형태를 갖는다. 수행목표

지향성의 하위요인으로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은 다른 학생과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은 다른 학생에 비해 자신의 무능함을 회피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다. 이 후부터 본 연구에서는 '숙달목표지향성'을 '숙달목표'로,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을 '수행접근목표'로,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을 '수행회피목표'로 지칭한다.

### 3) 학업적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선행연구(Bandura, 1977; 김아영·박인영, 2001)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학습자가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김아영·박인영(2001)의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 자기조절효능감, 자신감의 세 개 하위요인으로 나누었다. 과제난이도 선호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이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뜻한다. 또한 자신감은 학생이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의미한다.

## 4. 측정도구

### 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척도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와의 의사소통 척도(PACI: Parent 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중 민하영(1991)이 번안한 청소년 자녀용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부-자녀간 의사소통 20문항과 모-자녀간 의사소통 20문항으로서, 각각 효율적 의사소통 10개 문항, 역기능적 의사소통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문항 반응은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으로 채점하였다. 그러므로 이 척도의 특징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이며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 양측의 효율적 의사소통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4이었고, 부모 양측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전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3이었다.

### 2) 목표지향성 척도

본 연구의 목표지향성 척도는 Elliot와 Church(1997)의 성취목표 검사도구를 번안한 이선미(2000)의 목표지향성 척도를 연구자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Elliot와 Church(1997)의 성취목표 검사도구는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

목표의 3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숙달목표 척도는,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즐겁다'와 같이 과제 자체를 이해하려 애쓰며 결과보다 노력을 더욱 중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6개 문항이다. 수행접근목표 척도는 '학교에서 나의 목표는 다른 학생들보다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와 같이 타인과의 상대적 능력 획득과 자신의 능력 과시에 중점을 두는 내용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수행회피목표 척도는 '나는 단지 나쁜 성적을 받는 것을 회피하고 싶다'와 같이 과제수행 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자신의 낮은 학습 능력이 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내용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문항 반응이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으로 채점하였다. 따라서 이 척도의 특징이 높을수록 보다 긍정적이며 목표지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0이었다.

### 3)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업이라는 특정상황에서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박인영(2001)이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마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28문항으로서, 과제난이도 선호 10개 문항, 자기조절효능감 10개 문항, 자신감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난이도 선호 척도는 자신이 통제하고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자기조절효능감 척도는 개인이 자기관찰·자기판단·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신감 척도는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신 또는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검사의 문항 형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문항 반응은 "매우 그렇다"에 5점, "대체로 그렇다"에 4점, "보통이다"에 3점, "대체로 아니다"에 2점, "전혀 아니다"에 1점으로 채점하였고, 부정적 내용으로 진술된 문항은 역순으로 채점하였다. 그러므로 이 척도의 특징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80이었다.

## 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dows 12.0K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을 하기 이전에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내적합치도를 검증하는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목표지향성,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둘째, 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라 목표지향성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과 목표지향성 변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적률상관분석, 공차한계, 분산팽창인자를 산출하였고,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총 429명의 조사대상 중에서 남학생은 193명(45.0%), 여학생은 236(55.0%)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경기도 지역이 321명(74.8%), 서울과 인천지역이 101명(23.5%), 그 외의 기타지역이 5명(1.2%)을 차지하여 많은 수의 학생들이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지역의 5명은 지방에 거주지를 둔 서울 소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현재 재학 중인 학교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253명(59.0%)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174명(40.7%)이었다.

가족관계를 조사한 결과 부모님이 모두 계시다고 응답한

<표 1>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변 인	빈도	%	
		빈도	%
성별 (n=429)	남학생	193	45.0
	여학생	236	55.0
거주지역 (n=427)	경기도	321	74.8
	서울/인천	101	23.5
	기 타	5	1.2
학교 (n=427)	일반계	253	59.0
	특수목적	174	40.7
가족관계 (n=429)	부모님 모두 계심	413	96.3
	부모님 중 한 분/모두 안 계심	14	3.3
소득 (n=403)	200만원 미만	45	10.5
	200만원~300만원	101	23.5
	300만원~400만원	118	27.5
	400만원 이상	139	32.4
평균성적 (n=423)	0~59점	63	14.7
	60~79점	104	24.2
	80~89점	103	24.0
	90점 이상	153	35.7

  

변 인		아버지		어머니	
		빈도	%	빈도	%
부모님 학력 (n=417)	고등학교졸업 이하	103	24	171	19.9
	전문대/대학교 졸업	236	55	215	50.1
	대학원 이상	78	18.2	31	7.2
부모님 연령 (n=417)	41세~44세	45	10.5	153	35.7
	45세~49세	247	57.6	221	51.5
	50세 이상	125	29.1	43	10.3
부모님 직업 (부 n=413) (모 n=417)	무직/ 행상, 청소부, 일일노동자	6	1.4	216	50.3
	주부/ 행상, 청소부, 일일노동자				
	서비스직종사	42	9.8	61	14.2
	소규모자영업자	91	21.2	46	10.7
	일반사무직종사자	169	39.4	50	11.7
	관리직, 전문직종사자	105	24.5	44	10.3

<표 2>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경향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전 체		남학생		여학생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아버지	효율적	3.12	8.92	2.96	8.23	3.25	8.26	-3.35*
	역기능적	2.81	5.98	2.88	5.81	2.75	6.08	2.12**
어머니	효율적	3.42	8.28	3.23	7.81	3.58	8.33	-4.53***
	역기능적	2.79	5.82	2.82	5.60	2.77	6.00	.93

\*p<.05, \*\*p<.01, \*\*\*p<.001

학생이 413명(91.3%),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안계시다고 응답한 학생이 14명(3.3%)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 수준은 400만원 이상 139명(32.4%),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 118명(27.5%),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101명(23.5%), 200만원 미만인 45명(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평균 성적은 90점 이상이 153명(35.7%), 80점에서 89점 사이가 103명(24.0%)로 나타나 조사대상 학생들의 과반수 이상에서 평균성적이 80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60점에서 79점 사이가 104명(24.2%)이고, 0점에서 59점 사이는 63명(14.7%)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학력과 연령, 직업을 살펴본 결과, 부모님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전문대/대학교 졸업이 236명(55%),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103명(24%), 대학원 이상이 78명(18.2%)이고, 어머니의 경우 전문대/대학교 졸업이 215명(50.1%), 고등학교 졸업이하가 171명(19.9%), 대학원 이상이 31명(7.2%)이었다. 부모님의 연령은 아버지의 경우 45세에서 49세 사이가 247명(57.6%), 50세 이상이 125명(29.1%), 41세에서 44세 사이가 45명(10.5%)이고, 어머니의 경우 45세에서 49세 사이가 221명(51.5%), 41세에서 44세 사이가 153명(35.7%), 50세 이상이 43명(10.3%)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직업에서 아버지의 경우 일반사무직 종사자가 169명(3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관리직/전문직 종사자가 105명(24.5%), 소규모 자영업자가 91명(2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주부가 216명(5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직종사가 61명(14.2%), 일반사무직 종사자가 50명(11.7%)의 순이었다.

2.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반적 경향과 성별에 따른 차이

1)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고등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하위요인 중 아버지와의 효율적

의사소통의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3.12(8.92)이고, 남학생은 2.96(8.23), 여학생은 3.25(8.26)로 여학생의 평균이 조금 높았으며,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t=3.35, p<.05$ )가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2.81(5.98)이고, 남학생은 2.88(5.81), 여학생은 2.75(6.08)로 남학생의 평균이 조금 높았으며,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t=2.12, p<.01$ )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와의 효율적 의사소통의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3.42(8.28)이고, 남학생은 3.23(7.81), 여학생은 3.58(8.33)로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으며,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t=4.53, p<.001$ )가 나타났다.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2.79(5.82)이고, 남학생은 2.82(5.60), 여학생은 2.77(6.00)로 남학생의 평균이 조금 높았으나,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으로 아버지와의 효율적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효율적 의사소통에서는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고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에서는 남학생의 평균이 높았고,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높고 아버지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은 낮음을 알 수 있다.

2) 고등학생의 목표지향성

고등학생의 목표지향성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 중 숙달목표의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3.65(4.25)이고, 남학생은 3.59(4.70), 여학생은 3.70(3.83)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조금 높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수행접근목표의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3.45(4.99),이고 남학생은 3.30(5.04), 여학생은 3.57(4.82)로 여학생의 평균이 조금 높으며,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t=-3.47, p<.01$ )가 나타났다. 수행회피목표의 전체 평균(표준편차)은 3.27(3.81)이고, 남학생은 3.19(4.00), 여학생은 3.33(3.65)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조금 높으며,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t=-2.39, p<.05$ )가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의 평균이 남녀 고등학생의 전체평균과 남학생의 평균보다 높게 나와,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



<표 3> 고등학생의 목표지향성 경향

목표지향성	전 체		남학생		여학생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숙달목표	3.65	4.25	3.59	4.70	3.70	3.83	-1.64
수행접근목표	3.45	4.99	3.30	5.04	3.57	4.82	-3.47**
수행회피목표	3.27	3.81	3.19	4.00	3.33	3.65	-2.39*

\*p<.05, \*\*p<.01

<표 4>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경향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 체		남학생		여학생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과제난이도선호	3.01	8.38	3.05	8.65	2.97	8.15	1.00
자기조절효능감	3.22	6.69	3.07	6.25	3.35	6.77	-4.45***
자신감	3.06	5.85	3.44	5.92	3.43	5.80	.09

\*\*\*p<.001

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평균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수행접근목표의 수준이 높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행회피목표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과제난이도선호의 전체평균은 3.01(8.38)이고, 남학생은 3.05(8.65), 여학생은 2.97(8.15)로 남학생의 평균이 조금 높았으나,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자기조절효능감의 전체평균(표준편차)은 3.22(6.69)이고, 남학생은 3.07(6.25), 여학생은 3.35(6.77)로 여학생의 평균이 높았으며,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 $t=-4.45, p<.001$ )가 나타났다. 자신감의 전체평균(표준편차)은 3.06(5.85)이고, 남학생은 3.44(5.89), 여학생은 3.43(5.82)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는 개인이 자기 관찰, 자기 판단, 자기 반응과 자기조절적 기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를 의미하는 자기조절효능감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의 자기조절효능감 수준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4.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목표지향성의 영향

1)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성별, 학교, 가족관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연령, 어머니 연령, 소득, 평균성적), 목표지향성 변인(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변인(아버지와 의 효율적 의사소통, 아버지와 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어머니와 의 효율적 의사소통, 어머니와 의 역기능적 의사소통)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방지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28~0.93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7~3.65로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2) 고등학생의 과제난이도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고등학생의 배경변인과 목표지향성 변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과제난이도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배경변인이 투입된 모델 I의 F통계값은 11.22( $p<.001$ )로 모델 I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과제난이도선호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과제난이도선호 변화량 중 20%(AdjR<sup>2</sup>=.20)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과제난이도선호에

<표 5>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 성별	1															
2. 학교	-.18**	1														
3. 가족관계	-.03	-.06	1													
4. 아버지 학력	.01	-.28**	.03	1												
5. 어머니 학력	.03	-.30**	-.03	.57**	1											
6. 아버지 연령	-.04	.10	-.08	-.05	.03	1										
7. 어머니 연령	-.10*	.06	-.03	.03	.06	.58**	1									
8. 소득	-.04	-.37**	.30**	.40**	.31**	-.11*	.00	1								
9. 평균성적	.17**	-.66**	.02	.33**	.33**	-.10	-.02	.36**	1							
10. 숙달목표	.08	-.23**	-.01	.06	.21**	-.08	-.09	.09	.30**	1						
11. 수행접근목표	.17**	-.24**	.01	.16**	.20**	-.05	-.01	.18**	.39**	.41**	1					
12. 수행회피목표	.12*	-.01	-.05	-.03	.03	-.03	-.04	.01	.05	.15**	.41**	1				
13. 부효율적의사소통	.16**	-.13*	-.07	.12*	.11*	-.01	-.01	.10	.20**	.22**	.18**	-.07	1			
14. 부역기능적의사소통	-.10*	.08	.01	-.03	.01	.03	.03	-.05	-.07	-.01	.03	.14**	-.47**	1		
15. 모효율적의사소통	.22*	-.13*	-.04	.06	.05	-.01	.01	.09	.18**	.22**	.21**	.00	.72**	-.33**	1	
16. 모역기능적의사소통	-.05	.06	.03	.00	.04	-.01	-.01	.00	-.04	-.05	.06	.18**	-.33**	.78**	-.46**	1

\*p<.05, \*\*p<.01

가변인: 성별(남학생=0, 여학생=1), 학교(특수목적고=0, 일반계고=1), 가족관계(부모님 중 한 분/모두 안 계심=0, 부모님 모두 계심=1)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평균성적( $\beta=.34$ ), 학교( $\beta=-.15$ ), 성별( $\beta=-.14$ ), 가족관계( $\beta=.10$ )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성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II의 F통계값은 34.03( $p<.001$ )으로 모델 II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과제난이도선호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표지향성 변인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17%( $\Delta R^2=.17$ ) 증가하여 과제난이도선호 변화량의 총 37%( $AdjR^2=.37$ )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과제난이도선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숙달목표( $\beta=.40$ ), 평균성적( $\beta=.24$ ), 수행회피목표( $\beta=-.18$ ), 성별( $\beta=-.13$ ), 학교( $\beta=-.13$ ), 가족관계( $\beta=.09$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숙달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평균성적이 좋을수록,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이 낮을수록, 남학생의 경우, 특수목적고 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계시는 경우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III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투입되었으나 과제난이도선호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모델 III의 F통계값은 1.61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델 III에 포함된 독립변인들은 과제난이도선호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와 관련한 상반된 선행연구들에서 성적의 위계서열이 높은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할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문은식·김충희, 2003; 김현주·이병훈, 2005)과,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관계가 있다(김경근, 1996; 곽수란, 2004)는 상반된 분석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가족요인 중에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과제난이도선호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3) 고등학생의 자기조절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조절효능감에 고등학생의 배경변인과 목표지향성 변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배경변인이 투입된 모델 I의 F통계값은 15.96( $p<.001$ )으로 모델 I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기조절효능감 변화량 중 26%( $AdjR^2=.26$ )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평균성적( $\beta=.39$ ), 성별( $\beta=.15$ ), 소득( $\beta=.12$ )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성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II의 F통계값은 24.59( $p<.001$ )로 모델 II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표지향성 변인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12%( $\Delta R^2=.12$ ) 증가하여 자기조절효능감 변화량의 총 38%( $AdjR^2=.38$ )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수행접근목표( $\beta=.29$ ), 평균성적( $\beta=.26$ ), 숙달목표( $\beta=.20$ ), 수행회피목표( $\beta=-.16$ ), 성별( $\beta=.13$ ), 소득( $\beta=.11$ )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III의 F통계값은 3.54( $p<.01$ )로 모델 III에 포함된 독립

<표 6> 과제난이도선호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2.31	-.14**	-2.23	-.13**	-1.84	-.11*
	학교	-2.62	-.15*	-2.26	-.13*	-2.15	-.13*
	가족관계	6.33	.10*	5.45	.09*	4.89	.08
	아버지 학력	-.18	-.01	.30	.02	.33	.03
	어머니 학력	.40	.03	-.56	-.04	-.58	-.04
	아버지 연령	-.05	.00	.30	.02	.25	.02
	어머니 연령	.70	.05	.79	.06	.81	.06
	소득	-.18	-.02	-.18	-.02	-.10	-.01
	평균성적	2.68	.34***	1.87	.24***	1.87	.24***
목표지향성 변인	숙달목표		.78	.40***	.80	.40***	
	수행접근목표		.14	.08	.18	.10*	
	수행회피목표		-.40	-.18***	-.40	-.1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변인	부 효율적 의사소통				.04	.04	
	부 역기능적 의사소통				.05	.03	
	모 효율적 의사소통				-.15	-.15*	
	모 역기능적 의사소통				-.16	-.11	
R <sup>2</sup>	.22		.39		.40		
Adj R <sup>2</sup>	.20		.37		.38		
ΔR <sup>2</sup>	.22		.17		.01		
F	11.22***		34.03***		1.61		

\* p<.05 \*\* p<.01 \*\*\* p<.001

가변인: 성별(남학생=0, 여학생=1), 학교(특수목적고=0, 일반계고=1), 가족관계(부모님 중 한 분/모두 안 계심=0, 부모님 모두 계심=1)

<표 7> 자기조절효능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β	B	β	B	β	
배경변인	성별	1.99	.15**	1.75	.13**	1.29	.10*
	학교	.79	.06	.77	.06	.73	.05
	가족관계	4.37	.09	3.10	.06	4.07	.08*
	아버지 학력	.82	.08	.93	.09	.86	.09
	어머니 학력	.53	.05	-.02	.00	.10	.01
	아버지 연령	-.14	-.01	.12	.01	.17	.02
	어머니 연령	.00	.00	-.06	-.01	-.12	-.01
	소득	.82	.12*	.75	.11*	.64	.10*
	평균성적	2.39	.39***	1.59	.26***	1.55	.25***
목표지향성 변인	숙달목표		.31	.20***	.28	.18***	
	수행접근목표		.39	.29***	.37	.27***	
	수행회피목표		-.28	-.16***	-.24	-.1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변인	부 효율적 의사소통				.02	.03	
	부 역기능적 의사소통				-.11	-.10	
	모 효율적 의사소통				.07	.09	
	모 역기능적 의사소통				.04	.04	
R <sup>2</sup>	.28		.40		.43		
Adj R <sup>2</sup>	.26		.38		.40		
ΔR <sup>2</sup>	.28		.12		.02		
F	15.96***		24.59***		3.54**		

\*p<.05, \*\*p<.01, \*\*\*p<.001

가변인: 성별(남학생=0, 여학생=1), 학교(특수목적고=0, 일반계고=1), 가족관계(부모님 중 한 분/모두 안 계심=0, 부모님 모두 계심=1)

변인은 자기조절효능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변인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2%( $\Delta R^2=.02$ ) 증가하여 자기조절효능감 변화량의 총 40%( $AdjR^2=.40$ )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이 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수행접근목표( $\beta=.27$ ), 평균성적( $\beta=.25$ ), 숙달목표( $\beta=.18$ ), 수행회피목표( $\beta=-.14$ ), 성별( $\beta=.10$ ), 소득( $\beta=.10$ ), 가족관계( $\beta=.08$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행접근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평균성적이 높을수록, 숙달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이 낮을수록, 여학생인 경우,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고등학생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영역인 자신감에 고등학생의 배경변인과 목표지향성 변인,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배경변인이 투입된 모델 I의 F통계값은 2.85( $p<.01$ )로 모델 I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자신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신감 변화량 중 4%( $AdjR^2=.04$ )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자신감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학교( $\beta=-.20$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목표지향성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II의 F통계값은 32.37( $p<.001$ )로 모델 II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자신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목표지향성 변인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20%( $\Delta R^2=.20$ ) 증가하여 자신감 변화량의 총 24%( $AdjR^2=.24$ )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수행회피목표( $\beta=-.41$ ), 숙달목표( $\beta=.26$ ), 학교( $\beta=-.17$ )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이 추가로 투입된 모델 III의 F통계값은 4.51( $p<.01$ )로 모델 III에 포함된 독립변인은 자신감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변인의 투입으로 설명력이 4%( $\Delta R^2=.04$ ) 증가하여 자신감 변화량의 총 28%( $AdjR^2=.28$ )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자신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수행회피목표( $\beta=-.38$ ), 어머니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beta=-.27$ ), 숙달목표( $\beta=.26$ ), 아버지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beta=.24$ ),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beta=-.18$ ), 학교( $\beta=-.16$ )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수행회피목표지향성이 낮을수록, 어머니와의 효율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숙달목표지향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와의 효율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수준이 낮을수록, 특수목적고 학생인 경우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자신감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변 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B	$\beta$	B	$\beta$	B	$\beta$	
배경변인	성 별	-.49	-.04	-.07	-.01	.14	.01
	학 교	-2.45	-.20**	-2.00	-.17**	-1.92	-.16**
	가족관계	2.59	.06	1.54	.04	1.68	.04
	아버지 학력	.32	.04	.47	.05	.42	.05
	어머니 학력	-.63	-.06	-.97	-.10	-.95	-.10
	아버지 연령	.02	.00	.19	.02	.13	.01
	어머니 연령	-.02	.00	-.09	-.01	-.09	-.01
	소 득	.19	.03	.23	.04	.26	.04
	평균성적	.27	.05	-.09	-.02	-.15	-.03
	목표지향성 변인	숙달목표		.37	.26***	.36	.26***
수행접근목표			.10	.08	.11	.09	
수행회피목표			-.64	-.41***	-.59	-.38***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변인	부 효율적 의사소통				.16	.24**	
	부 역기능적 의사소통				.06	.06	
	모 효율적 의사소통				-.19	-.27**	
	모 역기능적 의사소통				-.19	-.18*	
$R^2$	.07		.26		.30		
Adj $R^2$	.04		.24		.28		
$\Delta R^2$	.07		.20		.04		
F	2.85**		32.37***		4.51**		

\* $p<.05$ , \*\* $p<.01$ , \*\*\* $p<.001$

가변인: 성별(남학생=0, 여학생=1), 학교(특수목적고=0, 일반계고=1), 가족관계(부모님 중 한 분/모두 안 계심=0, 부모님 모두 계심=1)

## VI. 결론 및 논의

### 1.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차이와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목표지향성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관계변수로 하였을 때, 변인들의 영향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앞서 설정했던 연구문제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경향은 일반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부모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수준이 높으며, 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 전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 결과를 보인다. 특히 수행접근목표와 수행회피목표에서 남녀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따라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수행접근목표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회피하고자 하는 수행회피목표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경향은 과제난이도와 자신감 영역에서는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자기조절효능감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더 높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과제난이도 선호에서 가장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것은 목표지향성 변인이다. 그 중에서 숙달목표가 높을수록 과제난이도 선호 수준이 높고, 수행회피목표와 과제난이도 선호는 부적의 상관관계가 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은 목표지향성 변인에 의한 영향력이 가장 크며, 수행접근목표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다. 수행회피목표와 자기조절효능감은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자신감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은 목표지향성이고, 그 다음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다. 목표지향성의 하위요인인 중에서는 숙달목표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신감 수준이 높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특이한 것은 어머니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자녀의 학업적 자신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다. 또한 아버지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청소년 자녀의 학업적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목표지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경향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냄으로써 남녀 간의 차이가 드러났다. 특히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서 남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차후에 가정에서 청소년기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역할 모델 제시와 자녀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에서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낸 것은 자기조절효능감이었다. 자기조절효능감은 과제난이도 선호를 약간 더 상회하는 설명력을 보여 두 하위요인 모두 설명력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주목할 사실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보다는 목표지향성 변인과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인은 '목표지향성'과 '성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 성취와 관련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우선적으로 크게 관심을 지녀야할 변인들은 학생들 자신의 개인심리적인 변수와 학교생활에서 드러나는 외적 지표인 성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정환경 변수들은 이러한 두 개인변수보다 개별적 영향력은 작지만, 전반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제난이도선호도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 그리고 자기조절효능감의 경우에는 가정의 소득과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배경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언급할 것은 과제난이도 선호도에서는 남학생,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여학생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성차의 영향력과 기제의 설명은 정교한 설계를 통한 후속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연구결과 나타난 사실에 의거하여 제한적인 설명을 제시하자면, 사회화 과정에서 남학생의 경우도 전적이고 모험적인 것을 권장 받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관계지향성 추구 등으로 인해 자기관찰이나 자기반응에 더 관심을 기울일 기회가 많아서 그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요인에서는 전반적으로 두드러지게 목표지향성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또한 목표지향성 만큼은 아니지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도 어느 정도 자신감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난다.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수행회피목표이지만,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다른 두 하위요인들과는 다르게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하위요인들이 어느 정도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사실은 어머니

니와 효율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자녀의 자신감이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는 통념적인 수준에서 고려해 본다면 이유를 납득하기가 어려운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효율적 의사소통의 의미가 청소년 자녀가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실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때, 특히 어머니와의 이러한 의사소통 관계 형성이 지나친 친밀감이나 정서적 밀착 등으로 인해 어머니에게 의존성이 심화됨으로써 정작 청소년 자녀 본인들은 자신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의 정확한 규명을 위해서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부와의 효율적 의사소통은 오히려 자신감의 증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이는 아버지와의 역할과 의사소통관계가 자녀의 학업적 자신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청소년 자녀가 발달하는 시기에서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 특히 자녀의 학업에 대한 자신감 획득에 아버지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에서의 아버지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함과 동시에 부와 모의 효율적 의사소통의 성격과 기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셋째,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장 잘 예측하는 변인이 목표지향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영역에 따라 조금 차이를 보여, 과제난이 선호도에서는 숙달목표지향성, 자기조절효능감에서는 수행접근목표, 자신감에서는 수행회피목표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따라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현장에서 학습자에게 그 하위요인의 성격에 따라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의 영향력을 적절히 고려하는 학습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조절 효능감의 증진을 위해서는 타인보다 우월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해주는 방식으로 수행접근목표 수준을 올려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K시 소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표집도 4개 학교로 수적으로 제한적이므로 전체의 일반계 고등학생과 전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고등학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직업, 교육수준, 경제수준, 학업성취 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으나, 그 밖의 부모지지, 부모애착과의 관계도 비교 분석한다면 더욱 포괄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된다.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보고식의 조사연구이므로 오류를 배제할 수 없다. 자기보고식 조사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개인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면접법과 관찰법 등과 같은 질적 연구의 보완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요인으로서의 목표지향성과, 가족요인으로서의 가정환경의 영향력을 검토하고,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대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이 지각하는 자신의 능력인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과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권대훈(1995). 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이 학습방략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생지도연구*, 15(1), 33-59.
- 가인영(2003). 목표지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학업 성취도와와의 관계. 이화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상미(2000).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아동의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수란(2006). 인문계 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교육사회연구*, 16(2), 1-29.
- 김경식(2006). 교사기대형성과 변화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54(2), 95-121.
- 김경근(1996). 한국 중학생의 학업성취 결정요인. *교육문제연구*, 8, 5-29.
- 김선숙·고미선(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 김아영(1997). *교육심리학*. 서울: 학문사.
- 김아영·박인영(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아영·차정은(2003). 교사효능감 및 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층분석. *교육심리연구*, 17(2), 25-43.
- 김은정(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사교육비, 부모-자녀 관계 그리고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1(5), 134-162.
- 김인향(1997).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어머니와의 의사

- 소통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주 · 이병훈(2005). 부모의 가정배경과 사회문화적 지원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47-70.
- 김희수 · 홍성훈 · 윤은종(200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6(2), 37-65.
- 남정홍(2001). 아버지-자녀간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향(199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유형과 청소년의 부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연희(2008). 학교급별에 따른 지각된 사회적 지지,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아동교육, 17(2), 49-64.
- 송인섭 · 박성윤(2000). 목표지향성 · 자기조절학습 · 학업성취와의 관계연구. 교육심리연구, 14(2), 29-64.
- 신종호 · 신태섭(2006). 고등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지각된 교사기대, 가정환경요인 간의 관계 연구. 아동교육, 15(1), 5-23.
- 원영희(1990).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미(2000). 수행-접근목표지향성과 학습전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2006). 중 · 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급풍토간의 관계모형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이연숙(200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 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주희 · 탁정미(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14, 209-227.
- 최병연(1998). 자기효능감, 성취목표지향성, 학습전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교육문제연구, 10, 227-253.
- 최영미(2006). 중고생의 교사기대지각, 학업적 자기효능감, 교과흥미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mes, C., & Archer, J.(1988). Achievement goals in the classroom: Students' learning strategies and motivation proces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60-267.
- Ames, C.(1992). Classrooms: goals, structures, motiv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4, 261-271.
- Avison, W. R. & McAlpine, D. D.(1992). Gender differences in symptom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 77-96.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 Schunk, D. H.(1981).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586-598.
- Bandura, A.(1986). A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rnes, H. & Olson, D. H.(1982).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 D. H. Olson, H. I. McCubbin, A Larsen, Muxen, M. & Wilson, M. *Family inventories*. MN: Univ. of Minnesota.
- Dweck, C. S.(1986). Motivational process affecting learning. *American Psychologist*, 41, 1040-1048.
- Dweck, C. S., & Legget, E. L.(1988). A social-cognitive approach to motivation and personality. *Psychologist*, 34(3), 169-190.
- Dweck, C. S.(1996). Capturing the dynamics nature of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 348-362.
- Elliot, A. J.(1994).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 intrinsic motivation analysis, Doctoral dissertation. Wisconsin University.
- Elliot, A. J.(1997). Integrating the "classic" and "contemporary" approaches to achievement motivation: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In M. L. Maehr & P. R. Pintrich(Eds), *Advances in motivation and achievement*, 10, 143-171. Greenwich, CT: JAI Press.
- Elliot, A. J, & Church, M.(1997). A hierarchical model of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219-232.
- Elliot, A. J., & Harackiewics, J. M. (1996). Approach and avoidance achievement goals and intrinsic motivation: A mediatio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61-475.
- Elliot, E. S., & Dweck, C. S.(1988). Goals: an approach to motivation and achie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12.

- Galvin, K. M. & Brommel, B. J.(1986). *Family Communication: Cohesion and Change*(2nd ed.). Glenview Ill: Scott, Foresman.
- Garcia, T. & Pintrich.(1991). The effects of autonomy on motivation, use of learning strategies, and performance in th college classroo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San Francisco, CA.
- Meece, J. L., Blumenfield, P. C., & Hoyle, R. H.(1988). Students' goal orientations and cognitive engagement in classroom activiti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514-523.
- Meece, J. L., & Holt, K.(1993). A pattern analysis of students' achievement go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5*, 582-590.
- Miller, R., Behrens, J., Greene, B., & Newman, D. (1993). Goals and perceived ability: Impact on student valuing, self-regulation, and persiste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8*, 2-14.
- Multon, K. D. Brown, S. D., & Lent, R. W. (1991). Relation of self-dfficacy beliefs to academic outcomes; A meta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0-38.
- Nicholls, J. G.(1984). Achievement motivation: Conceptions of ability, subjective experience, task choice, and performance. *Psychological Review, 91*, 328-346.
- Nicholls, J. G.(1989). The competitive ethos and democratic educ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Peterson, A. C.(1980). Biopsychosocial development of sex-related differences. In J. Parson(Ed.). *Psychological bases of sex-role related behaviors*. Washington D. C.: Hemisphere.
- Pintrich, P. R., & De Groot, E. V.(1990). Motivational and self-regulated learning components of classroom academic performance. *Journal of Psychology, 82*, 33-40.
- Rohner, R. P.(1991). Handbook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Storrs: Center for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Schunk, D. H.(1983). Ability versus effort attributional feedback: differential effects on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5*, 848-856.
- Zimmerman, B. J., Bandura, A., & Martinez-Ponz, M.(1992). Self- motivation for academic attainment: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and personal goal setting.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9*, 663-676.

□ 접수 일 : 2010년 03월 15일

□ 심사 일 : 2010년 04월 05일

□ 심사완료일 : 2010년 05월 01일